

공단, 인터넷 포털 통해 철도 전문지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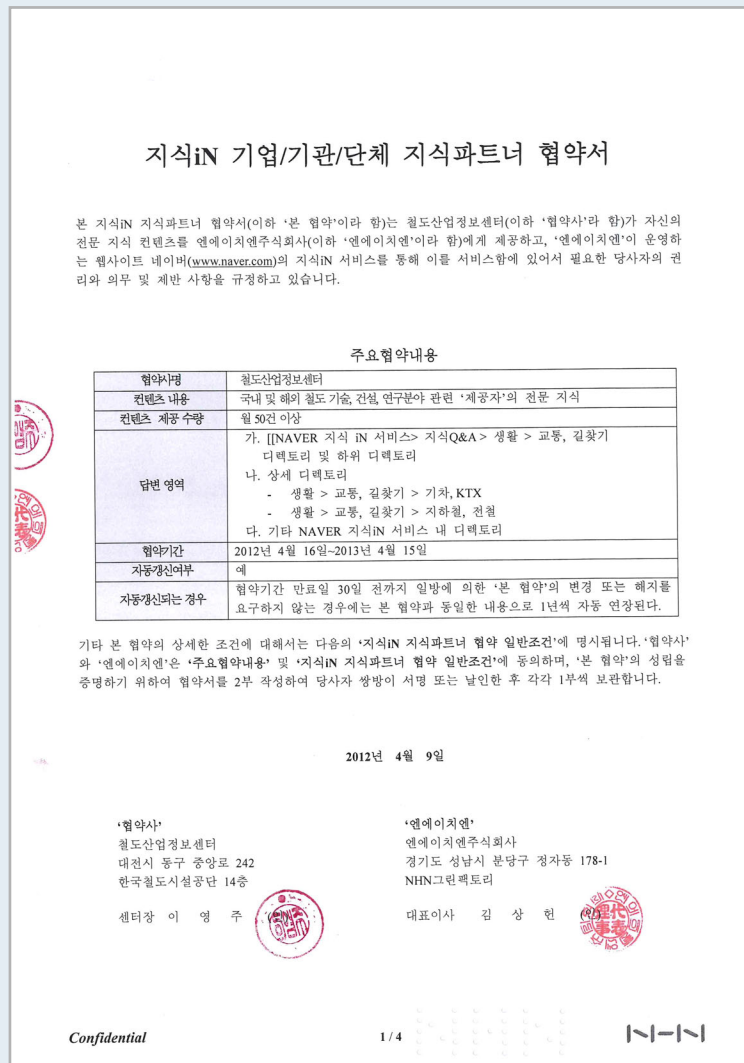
- 네이버(naver)와 지식파트너 업무협약 체결 -

공단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대표 김상헌)와 지식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3일부터 네이버(naver) '지식IN'에 등록되는 철도분야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과 국유철도재산 관리·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 공기업으로서, 국내·외의 철도건설·기술·연구분야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분야별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철도산업정보센터 지옥배 부장은 "철도공단은 집단지성을 이용한 지식기부 운동에 동참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네티즌들이 철도 산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다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혁신본부 백영경 기자>



기획혁신본부, '12년 창의혁신 실행위원회 개최

- 창의혁신 개선활동으로 공단 경영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 23일 '12년도 창의혁신 개선과제(Black Belt 과제) 완료에 대한 창의혁신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실행위원장이 김영우 본부장과 본부내 MBB(Master Black Belt, 창의혁신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우수과제 선발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에 앞서 김영우 본부장은 창의혁신 과제수행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말씀으로 혁신의 중요성을 과제 추진리더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금년도 기획혁신본부 창의혁신 과제는 KR 2020 글로벌 경영전략 달성 및 CEO 6대 경영방침과 연계하여 올 2월초에 개선과제를 도출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며 과제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제 추진리더를 부장이상으로 지정하였다.

기획혁신본부 추진 과제수는 총 12건으로 공단 내에서도 가장 많은 개선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공단 경영전략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개선과제 완료를 통한 주요 개선효과로는 재무적인 효과로 약 9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업무효율성 제고라는 무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앞으로 기획혁신본부는 개선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성과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공단의 경영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창의혁신 개선활동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혁신본부 임현민 기자>



대구선 복선전철 철도근로자 안전체험장 운영

- 영남본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재해율 "0" 달성 목표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철도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건설현장 내에 '통합 안전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1공구 노반 신설공사 SK건설 현장사무소 옆에 설치된 '통합 안전체험장'은 철도공단이 철도건설 근로자의 부주의한 의식, 습관, 행동개선 교육 효과가 높은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시행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재해율 '0'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단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2일 간격으로 본격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은 일반적인 안전체험은 물론 터널 및 교량 안전체험장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수가 2천438명으로 전년 대비 135명(5.9%)이 증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체험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미래 철도의 고객, KTX를 만나다!!

- 강원본부, 제5회 어린이 초청 철도사랑 캠프를 열다!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24일 자매마을 고산초등학교 어린이 26명을 초청하여 경부선 대전~광명 KTX 여행 체험과 본사 홍보관 Rail N KR 관람과 더불어 철도박물관을 견학하는 철도사랑 캠프를 실시하였다.

'08년부터 시작하여 다섯 번째 시행되는 철도사랑 캠프는 공단의 6대 사회공헌 활동 중 KR '교육·문화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대국민 철도 이해도 향상을 위해 특히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에게 철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번 철도사랑 캠프에서는 직접 KTX를 승차하여 경부선 대전역에서 광명역까지 친환경 녹색철도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이용이 어려웠던 참가 어린이들에게 철도가 편리하고 친환경 철도수단임을 알려주는 기회가 될 것이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철도사랑 캠프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수 기행문 및 그림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지역본부에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우리는 지식 챔피언

- '1인1지식 활동' 캠페인 시행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1분기 배움두레(COP) 활동 평가결과, 직원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1인1지식 활동'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1년까지는 기존 지식시스템을 통해 연간 1인 지식 5건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전직원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나, 올 해 신지식경영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부서중심 활동으로 변경되고, 평가 또한 부서 전체 마일리지만 획득하면 되는 구조로 바뀌다보니 부서내 특정 직원만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할 개연성이 크게 되었다.

이에 본부는 지난 월례회를 통해 소속장이 직접 전직원을 대상으로 창의혁신 활동에 특정 직원만 관심을 가지고 실적을 쌓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너나없이 본사 및 본부에서 추진하는 창의혁신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함은 물론, 향후 전직원 참여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및 독려를 강화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본부는 소속장이 직접 매일 윤리자진단 참여현황 모니터링에 대해 관심과 독려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청렴실천에 대한 인식을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소속장 이메일 경영을 통해 본사로부터 수시로 전달되는 윤리분야 청렴도 조사결과, CS분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최신 창의혁신 평가현황을 전직원에게 즉시 전파 및 공유토록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이러한 개인별 창의혁신 활동 캠페인을 통해 영남본부 직원 모두가 지식 챔피언이 되고, 나아가 창의혁신 전문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남본부 김시환 기자>



호남본부 '장애인 즐거운 한마당' 행사

호남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직원 20여 명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순천지회와 공동으로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제10회 장애인 즐거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김준영 부장은 "비록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우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고, 우리 직원들도 즐거웠다"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 직원들은 장애인 즐거운 한마당 행사가 끝난 후, 팔마체육관에서 순천역까지 도로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도 벌였다.



계시판

주요뉴스(4. 17 ~ 4. 26)

- 효창지하역사 건립 백지화 하내(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4. 17)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점검(대전일보 4. 17)
- 철도 건설보험 '일괄계약' 도입(서울신문 4. 17)
- KTX위로 또 다른 KTX가 지난대(매일경제, 서울신문, 한국경제 4. 17)
- KTX 광명역세권, 유동-IT-의료기기 타운 된다(동아일보 4. 17)
- GTX, 6월 조기 착공 가능성(경인일보 4. 17)
- 죽음 부르는 도상철로 코레일은 모르쇠 일관(전남일보 4. 17)
- 'KTX 민영화' 서둘러 밀어붙이는 정부(한겨레 4. 17)
- 관세·운영 따로... 사고면 혼선 불보듯(한겨레 4. 17)
- 'KTX 경쟁체제 도입은 요금 내릴 운영사 뽑는것'(매일경제 4. 18)
- 수서역발 KTX 민영화 '급가속' 노조 '여당, 약속 어길 땐 총파업'(경향신문 4. 18)
- 이주영, 'KTX 민간위탁논의' 권도요 요청 거부(한국경제 4. 18)
- 'KTX 민영화 가속도...정면충돌하나(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 4. 18)
- "경전철 전문학적 적자, 수요예측 뻔뻔한 탓"(경향신문 4. 18)
- 해외신용등급 1단계 상승(충청투데이, 대전일보 4. 18)
-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확산(국민일보 4. 18)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화 상반기 설계 착수(서울경제 4. 19)
- 경의선 철도부지 친환경 공원 변신(파이낸셜 4. 19)
- 마산 임항선 폐선부지 활용 평행선(국제신문 4. 19)
- 조기재정집행 목표 상황(대전일보 4. 19)
- KTX 민간위탁운영 '3각 갈등'(한국경제 4. 19)
- 여당도 "정부, KTX 민영화 일방적 추진 안된다"(경향신문 4. 19)
- KTX 경쟁체제 관련(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파이낸셜, 중도일보 4. 20)
- 철도용 변압기 개발 90억 예산절감(대전일보, 충청투데이 4. 20)
- 철도건설현장 안전체험장 첫 운영(경북일보 4. 20)
- 대구 '메가프로젝트'... '대구~광주 철도 건설' 가장 현실성 높아(영남일보 4. 20)
- '알짜 중의 알짜' 국토해양위원장 누가 꿰찰까(영남일보 4. 20)
- 中 고속철 시속 575km(한국일보 4. 20)
- 갈등·민원 해결로 예산낭비 막는다(대전일보 4. 21)
- 경쟁으로 KTX요금 싸지는 게 싫다(한국경제 4. 21)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착공 서둘러야"(강원일보 4. 21)
- 고속철도 예산 불용처리 위기, 방법을 찾아야(강원일보 4. 21)
- 'KTX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 가결(한겨레 4. 21)
- [CEO칼럼] 늘어나는 공공부채 줄이려면(서울신문 4. 23)
- 철도시설공단 안전점검 전국 103개 건설현장(대전일보, 충청투데이 4. 23)
- 철도 경쟁체제로 개혁 나설 때(세계일보 4. 23)
- 경쟁이 싫어 파업하려는 철도노조(서울경제 4. 23)
- 'KTX민영화' 강행 국토부 정청영 공보, 노조 폄훼도(경향신문 4. 23)
- "만성적자 해법" vs "민간기업 특혜"(국민일보 4. 23)
- "경쟁도입 반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한국경제 4. 23)
- 춘천~속초 철도 용역비 사용도 못하고 폐기되나(조선일보 4. 23)
- 마주보고 달린 열차(중앙일보, 국제신문, 영남일보 4. 23)
- 차 "KTX 민영화 반대"(조선일보, 한국일보 4. 24)
- 정리하고·민영화, 파업 이유 안 된다(중앙일보 4. 24)
- 철도공단, 철도건설계획시뮬레이션 가동(서울신문 4. 24)
- 삼척~포항 철도 시내노선 협의 재개(강원도민일보 4. 24)
- 철도시설공단-네이버 철도분야 정보서비스 협력(충청투데이 4. 24)
- 어린이 초청 철도사랑 캠프 운영(강원일보 4. 24)
- 연수구 역세권 달개공원 조성 '본격화'(경인일보 4. 24)
- 철도 경쟁체제 도입 민영화 인식은 곤란(파이낸셜 4. 25)
- 철도공단, 시공방법개선 57억 예산절감 효과(충청투데이, 대전일보 4. 25)
- 독점 운영에 부채 눈덩이... 멀어지는 '선진 레일'(한국경제 4. 26)
- 민간사업자 지분 51%는 국민공모·中企 등에 할당(한국경제 4. 26)
- 정치에 제동 걸린 KTX 민간개방 속도전(중앙일보 4. 26)
- 국외 신명사들 '한국 공기업·가계 부채' 우려(한겨레 4. 26)
- 국토부, 코레일에 지원한 5000억원 사용자 특별조사(조선일보 4. 26)
- 목표~광양 고속도 조기개통 KTX 주말 운행량 2배확대(서울신문 4. 26)
- 코레일 간이역 40곳 민간 운영자 공모(서울경제 4. 26)